

벤처기업, 2007년도 지속 성장 이뤄

전년 대비 매출 13.8% 성장, 고용도 7.48% 증가

협회는 2007년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 경영성과, 벤처지원제도 효과 평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벤처기업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37일에 걸쳐 2008년 4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대상으로 표본구축(지역, 업종, 규모)을 통해 1,000개사를 조사했으며, 2007년 연말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경영현황을 파악했다.

■ 벤처기업 경영현황

_ 벤처기업 매출 지속 성장 ... R&D인력 채용 가장 큰 애로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07년도 평균매출액은 53억 900만 원으로, '06년 46억 6,300만 원 대비 13.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07년 2,010만 원으로 '06년 1,880만 원 대비 6.9%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3.8%로 대기업(10.2%), 중소기업(7.8%)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6.8%로 대기업(6.7%) 및 중소기업(4.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대비 자산 규모는 16.7%, 부채 17.6% 증가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15.6% 증가했다. 일반 중소기업(제조업)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다소 높은 반면 부채비율은 낮아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은 4.2%로 일반중소기업 1.1%, 대기업 2.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보이고 있었다.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은 벤처기업은 37.4%이며, 정부정책자금 활용 평균금액은 3억 2,89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30.2명으로 '06년(28.0명) 대비 7.48% 증가했고,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 수가 94%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벤처기업의 인력구성은 첨단 및 일반제조 비율이 높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생산 활동 부문에 인력이 가장 많았으며(10.4명), R&D 부문에 대한 인력(6.6명)이 전년도(5.8명)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직종별로 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부족한 인력은 생산인력 및 R&D인력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R&D인력의 채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_ 대기업과 기술개발 협력 커 ... 자금조달·해외시장 진출 여전히 어려워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협력관계 경험이 전혀 없다(53.8%)', 협력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주력제품의 50% 이상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28.1%)' 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활동 경험률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기술공동개발(39.6%)' 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과 해외동반 진출(25.3%)', '거래조건 개선(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협력활동 중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을 조사한 결과, 거래 조건 개선과 대기업과 기술공동개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진출현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39.0%가 현재 해외에 수출이나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진출형태는 단순수출(67.3%), 직접진출과 단순수출병행(24.3%), 직접진출(8.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지역 분포는 일본(38.5%), 미국(36.4%), 중국(29.1%)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진출형태는 수출의 경우 유럽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법인 설립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68.5%),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68.3%)으로 나타났다. 이어 필요인력의 조달/관리(67.2%), 국내 판로개척(56.8%), 신기술개발 어려움(53.7%) 순으로 조사됐다.

■ 벤처기업 활성화 관련 이슈

– 벤처확인제, 홍보효과 가장 커 ... 정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확대가 창업 촉진
 벤처확인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술개발촉진효과, 영업마케팅지원효과, 자금조달투자효과가 그 뒤를 이었다.
 벤처창업 위축 요인은 창업자금 조달 어려움(32.1%), 안정적 직장에 대한 일반인 요구증대(18.2%)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 창업자 감소 원인으로 자금조달 및 경제침체로 인한 안정적 직장 선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정부사업 확대가 60.9%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개발 과제 벤처기업 참여확대, 법인세·배당세 등 기업관련 조세구조 개선 순으로 조사되어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핵심기술 외부유출 경험은 12.2%로 나타났으며, 유출 방식은 내부직원 유출, 거래업체 유출, 제품유출, 경쟁업체 유출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역할은 법적 규제강화, 보안시스템 강화, 유출방지비용지원 등의 순이다. 회사의 역할은 보안시스템 강화, 핵심인력관리, 보안요육강화 순으로 나타나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은 정부 및 기업이 모두 지속적인 교육 및 보안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됐다.

■ 「벤처기업실태조사」 종합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이번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벤처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해 자금조달, 인력수급, 기술경쟁력, 글로벌 시장진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모 협회장은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요즘 같이 경기가 침체된 시기일수록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벤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단위 : 만 원)

구분	2006년	2007년	'06~'07 증감률(%)
매출액	466,398	530,975	13.8%
영업이익	32,199	36,208	12.4%
금융비용 (이자비용)	7,694	11,054	43.7%
당기순이익	18,831	20,127	6.9%

* 점선안의 비율은 매출액대비 비율 = 영업이익/매출액 × 100

대기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의 경영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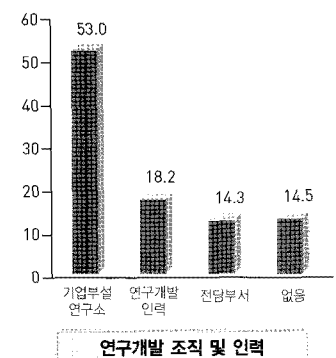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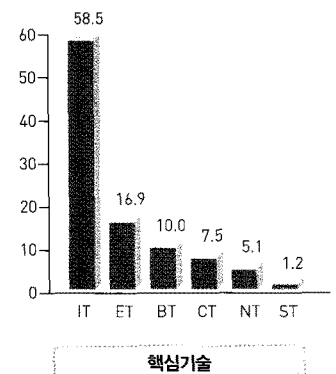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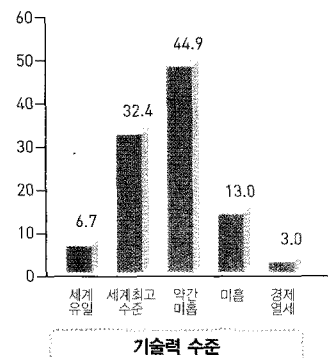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연도	대기업(제조업) ^{주1)}	중소기업(제조업) ^{주1)}	벤처기업
				(첨단제조업, 일반제조업)
매출액	2006	6.5	5.9	16.1
	증가율	2007	10.2	7.8
매출액대비	2006	6.0	4.3	6.9
	영업이익률	2007	6.7	4.5

주1) 한국은행, '2007년 기업경영성과분석'

주2) 중소기업청, '2007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 기술력 수준



벤처기업 재무상태

(단위 = %, 만 원)

구분	2006년	2007년	'06~'07 증감률(%)
자산	375,877	438,591	16.7
부채	206,572	242,859	17.6
자기자본	169,306	195,732	15.6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0